

“심폐소생술 배우자” 응급처치 강습 문의 급증

제대로 시행 땀 생존확률 확 높아져... ‘이태원 참사’ 후 관심 늘어

광주시 광산구에 사는 김형영(42)씨는 유튜브를 통해 심폐소생술(CPR) 영상을 찾아봤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많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CPR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김씨는 “이태원 헬러원 참사에서 CPR로 생명을 구했다는 소식이 나도 제대로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위급 상황이 닥쳤을 때 최소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 유튜브로 영상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지고 있다. 광주북부소방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에서 일반 시민들이 CPR하는 모습을 본 지역민들이 응급처치 교육 문의를 주고 있다. 평소보다 2배 이상 문의 건수가 늘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CPR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지만 제대로 된 교육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장이 마비된 사람에게 즉시 CPR을 시행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지지만, 제대로 된 방법으로 CPR을 실시하면 생존 확률은 더 높아진다는 점이다. 김용철 호남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많은 시민이 행한 CPR은 정석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심장에 자극을 준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다”면서 “CPR은 가장 기본적인 응급구조 조치인 만큼, 초등학교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함께 사용하

면 환자의 생존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점에서 자동 심장충격기의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AED는 환자의 심장에 강한 전류를 순간적으로 통과시켜 심장이 정상리듬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다. 1대당 설치비용이 230여만원인 AED의 관리는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 담당한다. 사용유무와 관계 없이 2년에 한번씩 약 10만원을 들여 패드를 갈고, 5년에 한번씩 약 20만원을 들여 배터리를 갈아야 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확대 보급이 필요

하다는 지적이다. 문혜정 광주북부소방 담당자는 “환자에게 1분 안에 CPR을 하고 3분 안에 AED 조치를 취하면 생존율이 90%다”며 “AED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안전벨트’처럼 모든 사람이 사용법을 익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에 따르면 공공보건 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를 갖춰야 한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김씨처럼 ‘이태원 헬러원 참사’에서 구조대원들과 시민들이 CPR을 실시하는 장면들을 본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CPR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오는 12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처치 일반과정은 거의 마감됐고, 18일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실습과정은 이미 마감됐다고 1일 밝혔다.

다음달에 열리는 CPR 교육 과정은 60%이상 예약이 찬 상태다. CPR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구조활동을 배워 응급상황에 대처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CPR은 심장이나 호흡이 멈췄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다. 혈액을 순환시켜 뇌손상을 늦추고 심장이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이후 일반 시민과 기관 등에서 응급처치 강습 문의가 평소보다 1.5배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광주북부소방에도 응급처치 과정에 대한 문의가

‘이태원 희생자’ 각각 다른 표기 혼란... ‘참사’ 아닌 ‘사고’ 논란도



‘이태원 헬러원 참사’와 관련해 ‘사고’로 표현하고, ‘희생자’를 ‘사망자’로 표기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면서 일선 지자체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정가에서는 “참사는 ‘세월호 참사’를 연관시키며, ‘희생자’는 정부의 책임이 강조되기 때문에 이들 용어의 사용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1일 광주시청에 마련된 분향소 현수막에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사진 왼쪽)로 표기됐고, 청사 외벽에는 ‘이태원 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고 적힌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CPR 교육 1년 3시간 뿐...초중고, 응급 안전교육 강화를”

안전·보건 교과 없이 학교 자율에 맡겨...분기별 교육 늘려야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심폐소생술(CPR)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발생 후 골든 타임인 4분 이내에 시행하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응급 처치법이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에서 심폐소생술은 물론, 다양한 상황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위급·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타인을 구할 수 있는 교육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보건 교육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초등학교에는 보건 교사가 따로 없어 체육 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간을 쪼개 보건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중·고교의 경우도 보건 교과 자체는 선택과목이어서 응급상황 대처와 관련된 교육은 체육 시간 등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고를 기준으로 1학년 때는 공통과목을, 2~3학년 때는 선택과목을 배우는데 ‘보건’ 과목은 보건의료계열로 진로를 정한 고3 학생들이 대상으로 한 ‘진로선택 과목’으로 분류돼 있다. 심폐소생술 교육의 경우 1개 학년에 단 3시간 교육이 이뤄져 교육시간 확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3년여 동안 집합 실습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 지역의 한 보건교육 담당 교사는 “CPR 교육을 1년에 3시간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교육시간

을 분기별로 1회로 정하는 등 늘릴 필요가 있다”면서 “학생들의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에 맞춰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단편적인 교육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안전 교육 표준안에 이번 다중밀집시설, 군중집회 등 이태원 사태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은 학교 안전교육에 활용되는 가이드라인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하면서 만들어졌다. 교육부는 “(표준안은) 일상생활에서의 위험에 대한 대응 역량을 기르기 위해 개편중인데, 다중밀집장소, 개인이동장치(PM), 동물 물림 등과 관련한 새로운 교육이 추가될 것”이라며 “특히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교육이 실습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연합뉴스

광주경찰, 다중 운집 예상 시설 안전진단

5·18민주광장·버스터미널...집회 다발지역 시청·한전 등도

경찰이 ‘이태원 헬러원 참사’를 계기로 다중 운집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에 나섰다. 광주경찰청은 11일까지 다중 운집이 예상되는 20여개 시설에 대해 위험요소 사전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광주경찰청 경비과는 대규모 집회시위 및 다중 운집행사가 빈번한 장소를 선정, 안전진단 장비 4종을 활용해 지리적·물적 취약요소를 확인 후 안전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진단장소는 월드컵경기장, 5·18민주광장, 아시아문화전당,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기아챔피언스필드,

KTX송정역,무등산 정상 뿐 아니라 대형 아울렛 매장까지 포함된다. 또 집회가 자주 열리는 광주 시청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한전 광주전남본부도 점검 대상이다. 경찰은 현장 안전진단 실시 후 취약요소로 확인된 지역에 대해 시설주 및 주최측에 취약점 등을 통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지속 관리한다. 특히 올해 카타르 월드컵 관련 대규모 길거리 응원전이 예상되는 만큼 월드컵경기장 등 다중 운집 시설 안전확보를 위해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임용환 광주경찰청장은 “다중 운집이 예상되는 집회·축제는 물론 자연발생 또는 소규모 축제에 대해서도 위험발생 요소 사전 차단 및 위험요소 발생시 관계기관과 합동 대응태세를 구축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단지점, 통광주지점, 각화지점